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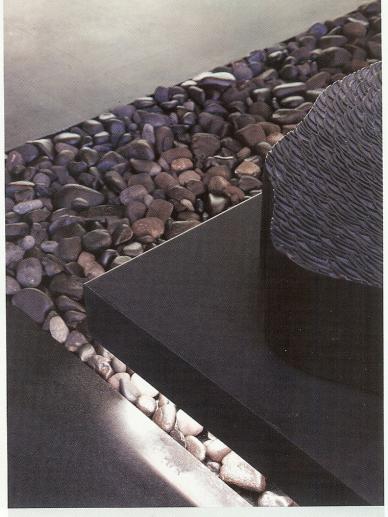








이 호텔의 이름은 영혼을 담은 세련된 도심 공원, 폰타나 파크(Fontana Park) 에서 따왔다. 자연적 요소와 공원 자체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이는 블랙과 화이트 이외에 '그린' 컬러를 이 공간에 사용한 이유이기도 하다. 컬러 선택의 기준은 간단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블랙은 이미 건축 가 아이레스 마테우스(Aires Mateus)와 나의 전용색으로 나는 이 블랙을 공간 에 흐르게 할 작정이다. 우리는 매우 단순한 선과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1 층에 있는 네덜란드의 사진작가 알마 몰만즈(Alma Mollemans)의 사진과 브라 질의 사진작가 알렉산더 리마(Alexandre Lima)의 커다란 사진들은 우리를 공 원으로 이끌어 준다. 이 호텔은 대조적이고 깨끗한 인테리어를 가진 도시 호텔 로, 디자인 오브제를 여기저기 놓고, 100년 된 커다란 나무뿌리를 가구로 사용 한 '미니멀리스트'로 디자인컨셉을 구성하고있다. 공용 공간인 뒤뜰의 정원은 함축성 있는 스케일로 변화를 담고 있다. 이 공간에 들어온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물성이 공간에 주는 독특함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 니라 느끼게 된다. 폰타나 파크 호텔(Fontana Park Hotel)은 나이에 상관없이 색다른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신 유행의 분위기를 가진 특별한 공 간이다. 나는 전위적인 사람이 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자재, 컨셉, 환경을 한 데 섞는 걸 좋아하며, 내 프로젝트를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바꾸어 새로운 단계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한다.







The name of the hotel was the main basis of creation, Fontana Park, an urban park, sophisticated and with a great soul. The natural factor and the park itself were the main theme for this project, the reason of the color choice, 'green' besides the black and white.

The color selection criterion was simple. When I embraced the project, the black already dominated as an architect(Aires Mateus) feature and mine also. This was fantastic and from now on I'd let it flow. We'd created very simple lines and ample spaces. Huge photographs from the Dutch photographer Alma Mollemans(on the ground floor) and from the Brazilian photographer Alexandre Lima(on lifts and Saldanha Mar Restaurant) convey us up to the parks.

It's an urban hotel with contrasting and clean interiors. It's a 'Minimalist' design concept, with design objects everywhere and huge centenary roots used as furniture.

The common areas are spacious and the existence of a garden at the backyard had change the scale significantly. People who come in immediately feel something different. It's not what people see but what they feel that matters be the most and what gives uniqueness to spaces. Fontana Park Hotel is a special place which has a trendy atmosphere for the people who like different spaces, no matter how old they are. I like to be avant-garde, to mix new materials, new concepts and surroundings, to bring up surprises at every new stage, transforming projects into something absolutely unforgettable.













